

축간사



국회의원 박형수

울진군의 문화와 역사를 집대성한 사서(史書)『울진군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001년 이후 20여년 만에 새로운 군지가 발간된다고 하니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울진군지가 재발간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울진군과 울진문화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에 매진하며 울진의 역사를 한 데 엮을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써주신 편찬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울진은 북면 주인리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유적을 비롯하여 삼국시대 창건된 천년고찰 불영사, 관동팔경(關東八景) 제일의 명승지로 손꼽히는 망양정까지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유산을 아우르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또한 예로부터 태백산맥과 동해바다 등 천혜의 비경을 벗 삼아 김시습, 정철 등 뛰어난 문인들은 울진에 대해 다수의 시문(詩文)을 남겼을 정도로 우리 울진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울진의 문화와 역사,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책무이자 소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부터 울진의 역사를 편찬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존해 있는 군지는 1939년 만든 기묘년 군지와 1984년 2001년 울진문화원에서 두 차례 편찬한 군지가 전부라고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유구한 역사와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울진군지』 발간에 노력해주신 울진군과 울진문화원의 노력이 더욱 뜻깊은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귀중한 사료이자 울진 미래의 나침반이 될『울진군지』가 울진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울진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울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울진군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든든한 역사적 뿌리 위에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울진군의회 의장 임 승 필

2022년이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도 어느덧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울진군지』를 발간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향토사지(郷土史誌)는 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지리, 사회, 경제와 산업 등을 망라한 기록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입니다. 이번 『울진군지』는 선조께서 남기신 문헌 및 사료, 지역 전문가들의 연구, 어르신들의 말씀을 면밀히 조사·연구하여 작성된 기존의 군지를 토대로 20년의 세월이 지나 후손들이 새롭게 정립한 연구내용과 군민들의 노력으로 놀랍도록 발전한 울진의 변화상을 녹여내는,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의 융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울진군은 대관령 동쪽에 있는 8개의 명승지를 뜻하는 관동팔경(關東八景)에 월송정과 망양정, 이렇게 두 군데나 꼽힐 정도로 예로부터 청정바다, 금강송숲, 계곡 등이 자아내는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정받은 명승지이자, 수많은 현인묵객(賢人墨客)의 찾아와 그 절경을 노래하고, 많은

충효열사와 석학들을 배출한 충의와 문향의 고장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덕구온천, 백암온천, 불영사, 성류굴, 구수곡 자연휴양림, 금강송 에코리움, 왕피천 케이블카,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등기산 스카이워크 등 다양한 관광시설과 더불어 온천욕과 산림욕, 해수욕 등 삼욕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경북 대표 관광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소 에너지산업 육성, 메타버스 및 AI 미래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융복합 관광코스 개발 등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군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은 후손들이 울진의 미래를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과거와 변화한 현재, 그리고 나아가는 미래가 공존하는 울진의 역사·문화가 이번 『울진군지』에서 새롭게 다듬어져서 후손들, 더 나아가 전(全) 인류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감개무량(感慨無量)함을 느끼며, 이번 『울진군지』 편찬이 바쁜 일상에서 잊혀가는 고장의 전통과 문화를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역사서(歷史書)에도 통용되는 말이지만, 『울진군지』도 자랑스러운 사건이든, 부끄러운 사건이든 상관하지 말고, 사실에 어긋남 없이 우리 고을의 참모습을 체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후손들이 울진의 번영과 발전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우리 고장의 소중한 자료를 담은 『울진군지』를 편찬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신 울진군지편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집필에 진력해 주신 집필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수집 등 군지 편찬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11월

축간사



울진문화원장 김 성 준

넷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역사 또한 지역사가 모여 나라의 역사를 만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가 바로 쓰여져야 나라의 역사가 바로 쓰여지기 때문에 지역사를 쓰는 것은 기층문화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울진군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발간되었습니다. 평해군과 울진군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각각 군지가 만들어졌고, 통합된 이후부터 약 4회에 걸쳐 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군지는 2001년에 만든 상·중·하권의 한글 번역문 군지였습니다.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하여 앞으로는 책이 없어지고 모든 문서들이 전자문서로 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번 군지는 책으로도 볼 수 있고 전자문서로도 검색할 수 있는 병용군지로서 책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군지라는 생각으로,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의 군지는 2001년도 발간된 군지의 증보판입니다.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군지에서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새롭게 발생한 내용 등을 보완하였고, 누구나 읽기 쉽도록 한글판으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하여 한자 원문도 수록하였습니다.

지난번 군지가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이번 군지는 증보판이다 보니 다소 많은 분량의 책이 되었지만, 주제별로 구분하여 찾아보기 매우 쉽도록 하였습니다.

울진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밝은 분들로 편찬위원들을 구성하고,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는 한편 울진의 역사에 지식이 많은 분들이 집필과 감수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책이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혹 미흡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본 군지가 우리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이해에 큰 역할을 하리라 믿으며, 그동안 군지 발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신 편찬위원들과, 공정한 잣대로 집필해 주신 집필위원, 감수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군지가 발간되도록 지원해 주신 울진군수님 및 군의회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